

K-신약 미국서 승승장구... '토종 블록버스터' 탄생 기대감

GC녹십자 혈액제제 '알리글로' ABO홀딩스 인수... 원료 안정적 확보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美 의약품시장 분기매출 1000억

셀트리온 '집펜트라' 연매출 1조 내년 시장 점유율 10%이상 목표



(왼쪽부터)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미국 판매명: 엑스코프리), GC녹십자의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 '알리글로', 셀트리온의 '집펜트라(렘시마SC의 미국 제품명)'. /각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약품 시장에서 '국산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탄생시키기 위한 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다.

12일 국내 제약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미국에서 혈액제제 '알리글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추가로 마련했다.

GC녹십자는 지난 11일 미국내 혈액원 운영 업체인 ABO 홀딩스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GC녹십자는 1380억원으로 ABO 홀딩스 지분 100%를 취득한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2025년 1월 31일이다.

GC녹십자에 따르면 ABO 홀딩스는 미국 뉴저지, 유타, 캘리포니아 등 3개 지역에서 6곳의 혈액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에 혈액원 2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어 오는 2026년부터는 총 8

곳의 혈액원이 가동될 예정이다.

GC녹십자는 이번 혈액원 인수를 통해 혈액제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는 앞서 올해 7월 자사가 개발한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초도 물량 선적을 완료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국산 혈액제제의 미국 의약품 시장 진입은 알리글로가 처음이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GC녹십자가 독자 기술로 혈전색전증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혈액응고인자

등 불순물을 제거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 알리글로 특징이다.

GC녹십자는 알리글로 미국 시장 출시에 힘입어 매출을 확대했다. GC녹십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4649억원, 영업이익 396억원, 당기순이익 358억원 등을 달성했다.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매출은 5.8% 늘었고, 영업이익은 20.7%, 당기순이익은 95.6% 급증했다.

이러한 호실적에서 GC녹십자의 혈액제제류 사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혈액제제류의 올해 3분기 매출은 1366억원으로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다. 특히 올해 2분기와 비교하면, 906억원에서 50.7% 확대된 규모다.

GC녹십자는 알리글로 판매 개시에 따라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을 내놨고, 오는 2025년부터 알리글로는 매년 5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GC녹십자는 오는 2025년 알리글로가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도 올해 2분기부터 미국의약품 시장에서 분기매출 1000억원대를 지속하며 K신약 경쟁력을 높인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세노바메이트(미국 판매명: 엑스코프리)는 올해 1분기 909억원, 2분기 1052억원, 3분기 1133억원 등으로 분기마다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SK바이오팜은 올해 초 세노바메이트 연 매출 목표를 3900억~4160억원으로 세운 바 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매출뿐 아니라 높은 신규 환자 처방 수를 성장기반으로 해 기업 입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세노바메이트의 출시 53개월 차인 올해 9월 기준, 월간 총 처방 수는 약 3만1000건으로 이는 경쟁 신약의 출시 53개월 차 처방 수의 약 2.2배 수준이라는 것이 SK바이오

팜 측의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집펜트라' 연 매출 1조원 달성으로 K블록버스터 강자 자리를 점조준하고 있다.

집펜트라가 주력하는 미국 염증성 질환 시장 규모는 12조8000억원 수준이다. 셀트리온은 오는 2025년까지 해당 시장 점유율을 최소 1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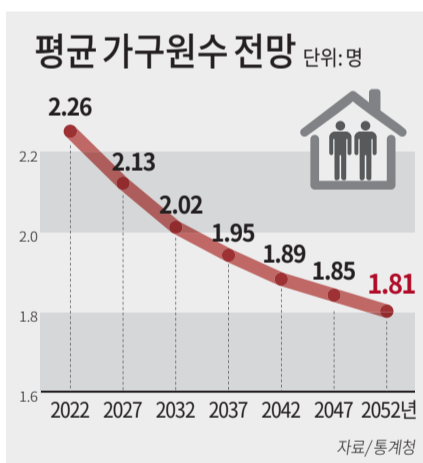
집펜트라는 치료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된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을 집에서 간편하게 자가 투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질병 관리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만큼, 셀트리온은 집펜트라 제품력과 수익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 관점에서 고려해보면 고수익, 고마진 등의 요소도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만 K신약이라는 원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마다 자사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미중국의 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적응증을 확대하는 등의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노력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52년 가구주 절반 '65세 이상 고령자'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고령자 가구 1178.8만 가구 전망 1인가구 비중은 41%로 7.2%p ↑



오는 2052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자 가구주가 절반을 넘을 전망이다. 또 전체 가구 열에 넷은 1인가구일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28년 뒤 가구주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다. 이 같은 고령자 가구는 2022년 522만5000가구에서 2052년 1178만8000가구로 100%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52년 50.6%까지 불어난다. 2022년에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비중은 전남(34.4%), 경북(31.5%), 전북(30.9%) 순으로 컸다.

또 세종(13.3%), 경기(19.6%), 대전(20.5%) 순으로 낮았다.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22년 기준 34.1%(739만 가구)에서 2052년 41.3%(962만 가구)로 7.2%포인트(p) 증가한다.

지난 2022년 시도별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지역은 대전

(38.2%)과 서울(37.7%) 등 14개 시도였다. 30년 후에는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해 2052년에는 17개 시도 모두에서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된다.

2022년 1인가구 비중은 대전(38.2%), 서울(37.7%), 강원(36.9%) 등에서 높았다. 2025년에는 강원(45.7%), 충북(44.5%), 대전(44.1%) 순으로 바뀔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2052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아지고 강원, 충북 등 12개 시도에서는 비중이 40%를 넘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2인가구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 2인가구는 619만 9000 가구(28.6%)에서 2052년에 826만1000 가구(35.5%)로 1.3배가 된다. 28년 후 모든 시도에서 2인가구 비중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벤처기업 10곳 중 7곳 올해 투자유치 실패

벤처기업협회, 455곳 대상 설문 절반은 "내년 자금사정 '악화' 전망" 기업 5곳 중 1곳만 '호전될 것' 응답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투자유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절반은 현재 직면한 주요 금융 현안으로 '운영자금 부족'과 '높은 금융비용'을 꼽았다.

응답자의 50%에 가까운 벤처기업은 내년 자금사정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5곳 중 1곳에 그쳤다.

절반 가량이 '악화'를 전망한 이유는 인건비 상승, 매출 감소 등이 가장 컸다.

이같은 내용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45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2일 내놓은 '2024년 벤처기업 투·융자 현황 등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면한 가장 중요한 금융 현안'(복수응답)으로 ▲운영자금 부족(29.6%) ▲높은 금융비용(20.6%) ▲초기 자금 조달 어려움(19.2%) ▲자본 접근성 제한(10%) 등 주로 '돈'을 꼽았다.

올해 대비 내년도 예상하는 자금사정을 묻는 질문에는 '악화'(다소 악화+매우 악화)가 47.7%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호전'(다소 호전+매우 호전)될 것이라는 답변은 20.9%에 그쳤다. 이외에 31.4%는 '동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선 '인건비 상승'(23.3%)과 '판매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22.6%)가 가장 컸다.

이외에 ▲원자재 가격 상승(17.4%)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16.6%) ▲연구개발 또는 설비투자 비용 증가(13.7%) 등이 뒤를 이었다.

/김승호 기자 bada@

소진공, 안전·환경 경영 ISO인증 유지

적극 ESG경영으로 재인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적극적인 ESG경영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및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유지했다.

12일 소진공에 따르면 ISO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진공은 2020년 ISO45001 최초 획득 후 2023년 갱신을 거쳐 올해 1차 사후 심사를, ISO14001은 2022년 최초 인증 후 올해 2차 사후 심사를 각각 통과했다.

특히, ISO45001의 경우 안전보건사고 예방을 위해 실습형 안전체험교육, 약성민원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안전 관련 안건을 적극 반영한 점이 인정받았다.

/김승호 기자

최진식 중견협회장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사진)이 차기 회장에 다시 추대됐다.

중견련은 지난 1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제12대 회장(2025년 2~2028년 2월) 후보로 최진식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2대 회장 선임은 내년 2월 이사회와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김승호 기자

기보, 제약·바이오기업 혁신성장 추가지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이 제약·바이오 기업 혁신 성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보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신약조합 본사에서 '혁신 제약·바이오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고부가가치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단계에 필요한 기술금융 종합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신약조합은 우수 제약·바이오 기업을 발굴하여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기술가치평가 실시 ▲보증연계를 통한 금융지원 ▲기술이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등 '원-스톱 패키지(One-stop Package)'를 후속 지원해 고부가가치기업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단계를 촉진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